

續明義錄諺解  
下

編  
54  
192

乾隆甲午年五月二十四日  
內賜慶尚左兵使白

續明義錄彙解一件

命除謝

恩



奎章閣待教臣徐吉



전속명의루차주

대광보국송탁태우령중추부스치스봉 조

하천김치인대광보국송탁태우의정부령의

성겸령경연홍문관에문관중추판판상감

소신김송철대광보국송탁태우령중추부스

신니은대광보국송탁태우의정부좌의정겸

령경연스감중추판소신당존겸대광보국

송탁태우의정부우의정겸령경연스감중

추판소신셔명선등은복이신등이성지를

밧드러마을을베프와명의루세편은지어공

경하야 드리올 씨 그 우의 드림이 오되서 리와 이  
슬이 고로로 베프옵고 형벌과 덕피훈가지로  
흐르오니 거의 이틀인하야 이의디난 흥도를  
새쳐 파하고 장리간계의 명동함을 미리 섰거  
일세를 인도하야 회극귀극하노니 치화에 다도  
가올싸 하엿습터니 전에 역적을 이의서치하  
매 후에 난 거시더 옥참독하며 원셔 명의록 천  
물계우을 나매 속편 내어지은 명이라 이다 시일줄  
을 뉘뵈하야 시리잇가 슬프다 인심의 화지어  
려 음과 방은의 불행음음이 엿디이극하기에니

르러트노고비록그러나황천과 조종의도으  
시름남소와죄인을이에어더천로를셀나히  
흐오나일즉호흡의위티흐거시모참버태산  
과반석의평안호디니르온디라므릇모든역  
적의도건이흐가지오일이또호마트며창조  
를런호고모움을미즌자를다그정상을어더  
부원을도망티못호오니슬프다그또호불행  
증에형이로소이다네로브터란역이엇디호  
이이시리오마는헤아리옵건태일쥬와일석  
의연피아나라신임이로브터무신이되고무

신으로말미암아을히되여 그불희를심금미  
 이의굿고흐르느를별이점점큰디라이닐은  
 바필지지세오이연지협이라그런즉이번역  
 적이삿흘말미암아근본을알며희미흐거슬  
 더듬어나타난거슬궁구흐면그연고로가히  
 주세히알디라위핍성공에위핍저알명정을  
후점의원악이되온거시  
 오전제장살궁로풀해히기논홍간홍현  
 의극역이되온거시니그니외로선동하며  
 전후로창화히기롤당히야씨를심거무리롤

만케 하니 그 계교를 당일에 밧되 디 못 할 매 그  
독이 죽은 후에 더욱 치성 할 야 상범은 비로 소  
작용 할 고 술 이 논 말 니 셔 화 응 할 야 흥 문 의 비  
슈 되며 롱 회 의 털 편 이 되며 호 임 의 쳐 주 되며  
게 능 의 슈 되 되 니 이 논 기 들 의 관 통 호 배 며 의  
논 의 전 술 호 배 라 처 음 은 군 부 로 더 브 러 항 형  
호 다 가 모 참 너 련 일 을 감 히 췌 략 할 야 위 터 호  
기 들 이 반 야 에 잇 고 종 샐 의 능 연 흥 이 호 터  
력 기 트 니 싱 각 할 면 쉼 놀 납 프 닐 으 면 머 리 솟  
그 러 호 니 라 그 전 은 구 휘 신 앙 역 리 배 에 셔 더  
구 봉 휘 라

흠이 잇고 후는 린량 좌수신역적 라 에 셔 비비하

니 천지 아래 오늘날 세 상을 본즉 국가의 난

이 만하면 피충충이나 물허희 통완티 아니홀

재이 시리 잇가 오 회라 우리 연해성신 불세

지 주로던디 호성지 덕을 두샤 므릇징토 하 시

느 즘음에 흠홀 하 시 논어 민공 옹은 능히 밀위

시고 험종을 다스리디 아니하 시 논의 를 무양

조츠 신디 라 슬프다 더 흉도도 또 호심장이이

시니 거희 위엄을 두리 고 은혜를 품어 일본이

나스스로 징즈 홀게 피를 흘려서 어 논어 디하



야옷밤의소리그치디아니하고식량의성품  
이더옥방소호야하늘그물이너무성귀를다  
히아너기교  님군의형세비야호로외로오  
시물타소취호며규결호야전전주만호야  
춤내이망추부도호일을호니처음브터저희  
무리반드시몬져제거호고저호는재오적이  
저군을도으며  사직을보전호게호는호  
낫신해러니이제호호남은독이또다른사름  
의게있다아니호야서로법을전호호호디라  
또술적이탐장죄로북방에귀호가매저주호

는부작을버갓가온대너허간즉그원망을빠

하현연히발뵈미이의 령정초두에잇는디

라슬프다또호호호고샤특호도다 술히기향  
히감소르

이더니 선호에어소를보네시니  
그예부러호호호로

상공과잇보호호호신화사지해호고저호야  
홍호부작을제희침에너코간디라이말이국

그형쇼스예낫어낫치난더라  
역찬의니르러는

왕실에갓가온종실노이우리의져구호야

파롱호는배되야괴특호보비로아라미루여

난의근본을삼아배민심이진탕호며 국세

급엄호를닐위니우호르공경으로브터아래

로여되에니르히분주함며브르지쳐훈가지  
로사디아니코져아니리업스디라이에신등  
이눈물을흘녀드토고 먼해눈물을흘녀니  
르샤측달함신모음을강인함야두로허경권  
의맛당호디합함게함시너대의정함고어디  
르시미지극함신디라오회라거룩함시도다  
이에닐으리신등이 덕음을흠송함며역도  
를분완함이더욱더싸에셔빙함이잇는디라  
슬프고통분함다전후연적이진실노다르디  
아니함즉원편이이의이시너속편을기드러

미업을슬듯흐오되그러나그훈몽치로되야일  
우고훈곳치의쉬이이여은미훈디로브러나  
타나며천천훈디로브러급히된거슬불히디  
아니훈즉취슈미의눈가지로년함며근막의  
서로통훈즐을알리잇고신등이공경함야복  
으신명을좃스와척을민드와류대로브러며  
태례로모도올서찬줍함의례는다원편을  
좃스왔는디라클아이의이오매삼가바슈함  
며계슈함야बाट드리오며인함야업디여  
싱각함업건대신등이던하망극함오신은

혜를 남스와 능히화란의점을막으며홍역의  
근원을몰히디 못하야 지존으로하야곰흔  
노우희셔근심하시를닐위오니그죄진실노  
욕하기어렵도소이다그러나오소이변은디  
내므로브러비루어린사나히와어린겨집이  
라도풀을썩버고눈을브름쓰며모음이문허  
지고피를쓰려 종국이평안하시물다행이  
너기고더러온류의탄멸하물보기를채히너  
기지아나리업소오니여귀하늘주신성품이  
흐가지오 조가의법과형벌이사롭의모음

을하<sup>○</sup>복<sup>○</sup>하<sup>○</sup>게<sup>○</sup>하<sup>○</sup>를<sup>○</sup>보<sup>○</sup>을<sup>○</sup>거<sup>○</sup>시<sup>○</sup>오<sup>○</sup>하<sup>○</sup>를<sup>○</sup>며<sup>○</sup>이<sup>○</sup>글<sup>○</sup>이  
나<sup>○</sup>매<sup>○</sup>충<sup>○</sup>성<sup>○</sup>된<sup>○</sup>자<sup>○</sup>는<sup>○</sup>더<sup>○</sup>욱<sup>○</sup>그<sup>○</sup>충<sup>○</sup>성<sup>○</sup>을<sup>○</sup>볼<sup>○</sup>거<sup>○</sup>시<sup>○</sup>오<sup>○</sup>역  
적<sup>○</sup>된<sup>○</sup>자<sup>○</sup>는<sup>○</sup>더<sup>○</sup>욱<sup>○</sup>그<sup>○</sup>역<sup>○</sup>적<sup>○</sup>이<sup>○</sup>나<sup>○</sup>타<sup>○</sup>나<sup>○</sup>니<sup>○</sup>장<sup>○</sup>초<sup>○</sup>보<sup>○</sup>는  
자<sup>○</sup>로<sup>○</sup>하<sup>○</sup>여<sup>○</sup>곰<sup>○</sup>북<sup>○</sup>히<sup>○</sup>향<sup>○</sup>비<sup>○</sup>의<sup>○</sup>는<sup>○</sup>호<sup>○</sup>임<sup>○</sup>과<sup>○</sup>륜<sup>○</sup>상<sup>○</sup>의<sup>○</sup>가  
히<sup>○</sup>업<sup>○</sup>슈<sup>○</sup>이<sup>○</sup>너<sup>○</sup>기<sup>○</sup>디<sup>○</sup>못<sup>○</sup>하<sup>○</sup>를<sup>○</sup>줄<sup>○</sup>을<sup>○</sup>알<sup>○</sup>게<sup>○</sup>하<sup>○</sup>이<sup>○</sup>오<sup>○</sup>니<sup>○</sup>배  
련<sup>○</sup>리<sup>○</sup>를<sup>○</sup>장<sup>○</sup>초<sup>○</sup>어<sup>○</sup>두<sup>○</sup>은<sup>○</sup>디<sup>○</sup>북<sup>○</sup>히<sup>○</sup>며<sup>○</sup>인<sup>○</sup>륜<sup>○</sup>을<sup>○</sup>이<sup>○</sup>의<sup>○</sup>신  
허<sup>○</sup>던<sup>○</sup>디<sup>○</sup>바<sup>○</sup>로<sup>○</sup>게<sup>○</sup>하<sup>○</sup>를<sup>○</sup>즉<sup>○</sup>실<sup>○</sup>노<sup>○</sup>방<sup>○</sup>명<sup>○</sup>을<sup>○</sup>새<sup>○</sup>롭<sup>○</sup>게<sup>○</sup>하<sup>○</sup>  
며<sup>○</sup>련<sup>○</sup>휴<sup>○</sup>를<sup>○</sup>마<sup>○</sup>자<sup>○</sup>넷<sup>○</sup>조<sup>○</sup>을<sup>○</sup>큰<sup>○</sup>기<sup>○</sup>회<sup>○</sup>라<sup>○</sup>신<sup>○</sup>등<sup>○</sup>이<sup>○</sup>쓰<sup>○</sup>그  
환<sup>○</sup>변<sup>○</sup>하<sup>○</sup>며<sup>○</sup>송<sup>○</sup>축<sup>○</sup>하<sup>○</sup>오<sup>○</sup>들<sup>○</sup>이<sup>○</sup>기<sup>○</sup>디<sup>○</sup>못<sup>○</sup>하<sup>○</sup>니<sup>○</sup>이<sup>○</sup>다

비<sup>○</sup>답<sup>○</sup>하<sup>○</sup>야<sup>○</sup>글<sup>○</sup>이<sup>○</sup>샤<sup>○</sup>디<sup>○</sup>차<sup>○</sup>조<sup>○</sup>를<sup>○</sup>술<sup>○</sup>퍼<sup>○</sup>경<sup>○</sup>등의<sup>○</sup>성<sup>○</sup>인

을다야노니차즈가온대전에연적을이미서  
치후매후에난무리더욱참독후고원셔를게  
우올니매속편이다시나다닐은말에니르러  
논더옥가히경등의피롤썩리며눈물을먹음  
논뜻을보리로다오회라엇디참아니르랴나  
의과미후브로버진실노귀극회극후는치화  
롤닐위문오히려브라기어려오나룡샤의적  
즈되기는또한장춧이클의힘님이이시라  
니나온바속명의루은즉시후여곰삭여박아  
버그전후를길게후노라

Blank manuscript page with horizontal lines and faint bleed-through text.



솔명의로권일

조녕유칠월신묘지팔월경술

원년<sup>당유</sup>추칠월신묘에도적이경희궁에드니

드디어포령을명하샤귀포하라하시다

처음에상이경희궁존현각에겨오셔

양쇼회를파하매글을보오샤밤이반에니

르시더니칠월이십팔일밤에미쳐는상

이존현각에겨오샤초를혀고글을보실시

것희적은황운<sup>유공</sup>하나히잇다가<sup>명</sup>을

밧조와호위군사의번든뒤를가본다라좌

우에 사름이 업더니 흘연이 듯소오시니 발

자최소리보장문 문존이라 것동북으로브러

얼랑집우흐로말의암아은은히와 어좌

중류 집몸 에니르러기와를나리치며지악

을더저종종정정 소려 하야가히형상티못

하디라 상이교요히드르시기를량구히

하오시매도적이이셔시험하려하산줄을

슬피시고친히한시와익예를브르샤분을

들고지분우흘뒤여태즈니치악파모래쥬회

하야어즈러위사름이태여브른듯하니도

적인 주리의 심이 업손디라 드트여 도승지  
홍국영을 명하야 입시하라 하시고 연교  
를닐으시니 국영이 썩예 금위대장을 섹엇  
는 디라 표신으로 배연화 문숙위하는 군소  
와 및 삼영순경하는 군소를 셤니 도발하야  
궁장안과 밧글드희여 막조르며 무예 별감  
은 합문에 직히여 배도적의드라 나물방비  
하고 대닐를 투로 슬퍼츠를 청하대 상  
이 허하시고 또 국영을 명하야 신전으로 배  
금군을 거느려 하야 금궁수하라 하시니 썩

예 밤이 검고 풀이 무성하매 네 벽으로 뒤여  
종시히 업고 새 배 북이 장춧누리 매이엿그  
치니라 령의 정김상철과 좌의 정령손겸과  
우의 정셔명선등이 변을 듯고 창황히  
궤에와이튼날대소헌당창순과대소간도  
영진등모든디간으로터브러형디하니  
상이 흥정당에 던좌하샤 명하야 입시하  
라 하시니 상철등이 졸으디 궁금의 심엄하  
온디도적이 감히 방조히드 입기느디 난스  
텨에도 뜻디 못하엿습느디 라이반드 시흥

역의연일이근시의자며아니자를옛보미  
오니환을념려호노도리가히쥬밀티아니  
티못홀거시니이다삼이골으샤디흥얼  
이옛보은족히모임을응조길새시업스도  
속위엇디어러트시허소호노승지딩민시  
환을념려홀도리를알외고인호약속위로  
경직호며익에를존희므로청호니삼이  
명호샤위장의오경순경호는택범을복구  
하라호시고디간드려우르샤디엇디호야  
청디호노창순등이알외되익딩소속가온

대근패분명티아니호쟈를다사히호야업  
시호기를민시의말기티호쇼셔호고쇼포  
형으로호호도적을차자반드시잡기를청  
호니 상이올타호시다상철이쇼알외되  
병조판셔와삼군문대장이쇼로도쇼라호  
기를벧법대로호고훈련도감금위영모든  
번든장판이그군소를거느려위장파부장  
으로터브러안팎그로쇼라호여더라호대  
다 조태시다○모든대신이존현각합은  
이엇허간악호놈으로호여곰엇보고란이

흥기 위오므로 배창덕궁에 환어흥시물  
형흥나닷새디난후병신에 상이창덕궁  
의환어흥시다

팔월임인에도적이창덕궁경추문담을넘다  
가군포직힌군소의잡아바친배되다

새에밤이이경이라경추문군포직힌군소  
김춘득파김세징등이서로베고누엇더니  
사름이이서소리물너즉이흥야군포군소  
브르기를두세번흥거놀세징이더담고져  
흥더니춘득의나히일닐꿈이라급히말녀

골오더브르느소리슈샹ㅎ, 니아직더담말  
고동정을보자ㅎ더니이욱고그사름이바  
로경츄문복편담을향ㅎ야기만히넘고져  
ㅎ, 거늘츄득등이겅군포군스김츄삼니복  
지두사름을차니르혀서로더브러쏘차잡  
아병조로셔포형으로보내여그정절을힐  
문ㅎ, 니원쓸임장ㅎ, 느현유귀일ㅎ을ㅎ문  
이라고친놈이라홍문이공소ㅎ, 되전일에  
강룡휘로더브러기만히존현각지방우희드  
러와작란ㅎ, 고져ㅎ, 다가못ㅎ, 고이제소두



번드다가 군포군사의 잡은 배 되 엿노라 하  
니 포령이 초고 하야 금부로 오며 거 보내 다

게 코에 던 흥문과 강릉휘와 강계창등을 국문  
하야 흥문과 롱휘는 복주하고 계창은 경폐하  
다

이 날 상이 장면에 님하야 춘득등을 상배  
포시물 차테로 하시고 드티여 흥문을 국문  
하시니 흥문이 공소하되 솔히 아들 상범이  
만히 소소를 죽는 줄이 어려워 아나 길니 모  
역하고 저 할시 호위군관 강릉휘 호응하 기

는듯듯하니 상범이 더브러이 웃듯야 깃  
서로잇고도흔벼슬노배달내약듯여끔제  
고고저듯는바를듯라듯고신이 녀력이잇  
고가난듯므로배롱휘신을일천오백문돈  
을주고겨집종으로배겨집삼기를듯듯고  
더브러일을듯가지로듯물요구듯는고로  
신이과연허락듯고롱휘로더브러상범의  
잇는바듯대섭의집에가니흥통디란재이  
서상범으로더브러구촌친이되느디라마  
만듯새를참예듯야듯고또김롱복이란놈

이잇는디라신이이틀을머물어자며그  
만흐썤롤듯조오니상범이룡휘드려무려  
골오디널노더브러모임을흐가지로흐는  
재멋사룸이노룡휘골오디가히스므사룸

후에효스하회오  
십년이러하나라오어드리라상범이즉시

그성명을버려버표동속에곰초고썬언약  
흐되고만이드러갈썤에룡휘논쇠채롤가  
지고신은드논찰을가지고 대컬드러가  
사룸을만나거튼은득죽이고상범은스므  
사룸을거느려그뒤흐썤와변을보와점음

하렷노라 하야약속을이의명하고철월이  
십팔일에 대컬밭개잡는집의나르러룡  
회신을서픈돈을주어개장을사먹고호가  
지로 대컬안희드러가계창이란별감파  
월혜란니인을블너귀에다허고말하기를  
량구히하고날이저물매약방마즌편문안  
하노곳을말미암아룡회엇개로신을올니  
거늘신이또손으로룡회를드르여올니니  
룡회모래를옷자락에바치고호가지로집우  
희을나즌현각집모니나르러기와를거드

며 모래를 더 저 독갑의 형상을 하여 사람의

보여듯기를 현란하게 하여 장차 부도의 역모

이<sup>하단말</sup>라 일을 발되려 하여 하니 홀연 드르니

대궐 안히 물설듯 하여 뒤여 엇기 심히 급호

고로 신이 용휘로 더 브러 첨하로 쉼여 너려

신은 루국<sup>루슈잇는</sup> 뒤플속에 업드 엿다가

하늘이 북으매 홍원문으로 조차나 오고 용

휘는 금천교<sup>다라</sup>라<sup>라</sup>한<sup>한</sup>를 향하여 슈문통<sup>물나</sup>

라<sup>중기</sup>을 꿰고 등<sup>다</sup>라<sup>다</sup>난고로 이튼날 개잡노<sup>가</sup>집

에서로 모히여 보니 그 홀발이 물에 밋그러

저오히려저젓고상범이김가놈으로너브  
러슈문통으로브터뒤흘솔와오다가일이  
이의그릇되물보고즉시도망하야도라가  
니이거시다개잠논집에서롱회의게드른  
배오롱회다시신드려닐오디후에맛당이  
상범의집에다시모도일새시니삼가스스  
로져상티말나흐읍더니미 때개환어하  
시를드르매두번들기를피하다가미춤내  
군포군스의게잡힌배되었나이다또못조  
오시디상범이비야흐로전쥬잇거늘흔가

지로 잣노라 하니 허망하다 흥문이 또 공소  
하되 흥가지로 자시미 분명하와 거 좃말이  
아니 오니 만일 발포하야 엇디 못하즉 신이  
맛당이 거 좃말 하되 에 엄드리이다 별감강  
계창파닉인 월혜는 주니로 추문하신 후에  
국령에 내여 맛지시니 월혜는 룡휘의 딸이  
오계창은 그 족해라 계창이 공소 하되 칠월  
이 십팔일에 신이 별감으로 주비에 번드  
러 습러니 황은 때에 흥문이 전립을 쓰고 칼  
을 세고 신의 방에 너르러 신을 불러 말하야

콜오디오늘 대니갓가온디셔자다가홀  
일이잇노라호고인호야므르되 대현주  
비어디노신이콜오디아라므엇호려호는  
노홍문이콜오디존현각집우희오르고적  
호노라신의쇼콜오디올나므엇호려호는  
노홍문이콜오디큰일이라엇지네게가비  
야이루설호리오후에맛당히스스로알니  
라호고인호야비곰해라호고음식달나기  
롤마지아나호입거늘신이알젓스로베주  
고쇼무르되엇디칼을샐는노홍문이크오



디 존현 각우회을나림박호노이 잇거 든지  
르려호노라호고다시 데면주비를곳이  
못거늘신이그망령된말을호야장춧내게  
련루호를유지즈니홍문이곧오디념려알  
나네게는관계타아니호니라신이곧오디  
일이이의이에너르러시니맛당히널노더  
브러호가지로호리라드득어현모문안호를  
무르쳐곧오디이 데면주비니라홍문이  
광달문것히셔두로물며부양호야보며비  
라더나오래디아니호야롱회소채를허리

뒤히싹고이이히 회도만와신으로호여곰  
그쌀월혜를블녀서로터브러말호니다호  
퍼부도호말이오또골오터만일급호일이  
잇거든네나롤곰초라호니 때예홍문이논  
가설즈비것희셔고조라치황가놈이또호  
것희잇다가보왔느니이다이우고두사름  
이각각호터져갓터니이밤에파연존현각  
우희변이잇터이다못즈오시디홍문의일  
을뒤식여호야시며월해도또호안희셔새  
를호가지로호였느나계창이또공사호도

홍문이 스스로 널은기를 원할 홍가 사람이  
저를 식여이 일을 할 그 열혜의 외논 오직 고  
상궁이 안다 할 더 이 다 열혜 공소 할 되고 상  
궁은 방 쥐 온 고로 과연 룡 휘의 말 노 배 전 할  
온 즉 고 상궁이 말 니 디 아 나 할 고 또 그 슈 양  
호복 문상궁으로 더 브러이 일을 방 안희셔  
그 만히 널 너 서로 그 일 되기 를 브라 더 이 다  
드 디 여 슈 의와 복빙을 국문 할 오 시 너 슈 의  
는 곳 고 상궁이 오복빙은 곳 복문상궁이라  
다 승복 아 니 할 니 슈 의 드 려 못 조 오 시 디 별

삼고종환이 대컬안팎과 작폐하야 죄실노  
용셔지어려온고로명하야결근하야징려  
훈주네감히원망하노말을내고네일죽이  
다김귀주의집에친밀하디라귀주를쳐분  
할새에네또감히원망하노말을내고그다  
로죄악은비록다닐이다아니하나이제선  
지용납함이막대호판면이어늘감히네업  
는후하말을듯기를심상히하고또조차깃  
븐빗치이시문엇딘일고슈의공소하되죄  
를알며죄를아니다인하야룡휘를국문

하시니 용회공소하되 지히의 족하상범이  
신을 쇠와 골오디네공곤하나 내말은드르  
면맛항히 조흔벼슬을하인리라신이발신  
하기에급하야칠월이십팔일에신은털편  
을가지고흥문은칼을세고몸을검초와  
대컬드러가게창과월혜를보고하여곰  
주비길홀기르티라하야존현각우희을나  
귀를을보와역변을짓고저하더니 대컬  
안히물쓸듯함을인하야각각스스로도망  
하야드라나니이다갑진에흥문과용회를

릉지쳐스흐고노적흐기를범대로흐고슈  
의와복빙은감스녕비흐니냥시드트로되  
쫓디아니흐시다

을스에홍상범파최세복이부쥬흐다

이전에술히황히감스롤흐야탐장죄를범  
흐야맛당이죽을거시로디특별이가비아  
온법을조차결장흐야히도에귀향보내엿  
터니맛상간이모연흐다가죽으매그형테  
와츠질이후귀향가며혹방쫓흐니모든연  
적이일야에원망흐야함하드위디옥남한

다라이에니르러술히의아들상범이전쥬  
로브터차최를김초야서울을나와혹홍대  
섭의집에서자며혹홍신덕의집에서자홍  
필히와밋롱휘홍문으로더브러새베와방  
이로모히여그만히블체를썩히더니밋홍  
은의일이드러나매말이모든역적의게런  
하야금외라금위잡거를금히하니상범과필  
히다브람을브라고도망하야숨은디라드  
트여신덕과대섭을국문호오시니대섭은  
승복다아니하고노졸오되상범이전라도

간디이의오래니이다신탁이공소호되금  
년혹월간에상범이모든역적을그집에모  
도니최세복과박히근이란놈이다술히의  
비부라술히의귀향간곳으로셔올라와호  
가지로그안히씨호니그씨호조식을모득  
호야몬져도승지롤해호려호터이다이에  
세복과히근을잡아국문호니세복이공소  
호되술히귀향간곳에왕리호야그복심이  
되엇습더나히근이일승정원소령이되야  
전소약별감은저희보로기들소약이라존  
청호고더라이려르르소약이라일



다 스 김슈대로더브러서로친호고슈대의성  
질너금희비야호로니안이되어시므로반  
원호며쥬션호야신으로버비설방고직을  
도모호야호이거든칼을품고기만히어어  
괴를을타역변을지으려함이과연신덕의  
말호하니이다히근은호되다안반원호야  
도치호려호는색를알고더브러힘을호가  
지로호였소오되고역모는실노참예호야  
뜻디못호였니이다또곧오더북월에상범  
을가보니상범이근절이청호되고기만히성

중에 드러온 말을 삼가 입에 내디 말나 하느  
고로 신이 과연 허락하고 그 बात 말하 배업  
서이다 인하여 입을 닷고 송복 아니 하다 오  
래 디아 니하여 금부도 시 상범을 팡느 로에  
가 잡아 오느 강릉 회를 아느 다 못 조 오 신대  
공소 하되 아 디 못 하느 이다 또 현 흥문을 아  
느 다 못 조 오 신대 또 공소 하되 아 디 못 하느  
이다 명하샤 통회와 흥문으로 더 브러면  
질하 라하 신대 상범이 겁내 여 글 오 더 원컨  
대 몽 두 하 거 슬 벗 기 디 말 고 몬 저 신 의 얼 글

을 두놈의 게 무르쇼셔 밋용 두호 거슬 벗기  
고 룡 휘로 더 브러 연질 흥 매상 범이 손으로  
는 출 나 리 오 고 오 래 게 야 룡 휘 드 러 날 오 도  
네 날 을 아 는 다 룡 휘 곧 오 더 내 었 디 너 를 아  
디 못 흥 리 오 네 흥 판 셔 의 족 해 니 라 든 흥 문  
으로 더 브러 면 질 흥 니 흥 문 이 곧 오 더 네 흥  
술 히 의 아 들 이 아 니 나 굿 그 적 귀 네 강 룡 휘  
로 더 브러 원 쓸 흥 대 셴 의 집 에 모 히 이 여 셔  
파 를 사 먹 을 제 것 히 네 동 형 이 이 셔 흥 가 지  
로 먹 어 시 니 네 감 히 바 로 고 티 아 니 흥 나

상범이 곧 오디 너 석 돌을 셔 울 드려 오 디 아  
니 하 여 시 니 네 본 배 반 드 시 내 얼 아 이 로 다  
흥 문 이 곧 오 디 너 얼 아 으 는 내 아 디 못 호 고  
다 만 너 틀 아 노 라 이 에 상 범 이 감 히 숨 기 디  
못 호 야 승 복 호 기 를 흥 문 파 롱 휘 의 공 소 와  
함 께 마 티 호 는 디 라 다 시 못 주 오 시 디 흥 역  
의 일 을 반 드 시 네 혼 자 판 단 흥 이 아 닌 새 시  
니 놀 노 더 브 러 호 가 지 호 호 었 는 요 상 범 이  
공 소 호 되 롱 인 잇 는 흥 필 히 일 즉 상 간 을 구  
르 쳐 모 역 호 었 는 니 이 다 드 디 여 상 범 파 세

복을 능지쳐 소하고 노적하기를 법대로 하고  
고히근은 장폐하고 신력은 지정블고로쿠  
월에 니르러 정법하고 대섭은 추조도에 감  
소안치하니 낭식계소야 상범의 제부지  
히술히찬히등을 셤니 발포야 그정절을  
궁히히를 청하니 조츠시다  
신등은 삼가 안호오니 하놀이 성인을  
보우히시물이 척주슈미에 보와가히징  
험히리로 소이다 슬프다 후겸파린한의  
세성호날을 당호야 저위를 위티하시

개호기를싸호야밭과안호로모, 입을호  
가지로호니그형세반드시다형함이업  
솔거시로디모, 참내, 대척을싸예정호  
요, 보위를빛나게님호, 오시니하늘의  
성인위호, 시미가히위곡호야남긴모  
척이업다날으리로다오직려흥되거의  
하늘의덩호시어이미쿠드신출을싸드  
라져상호, 고주러져감히다시다른모, 음  
을빙동티아날거시어늘식랑의성품이  
화호, 기어렵고옷밤의소리고티다아니

후기에 할일이 업는디라이에 상범의우  
리바로슈세를범할새를지으니 슬프다  
반야집우희변을싱각후면예초되정상  
을측량티못하고종적을찾디못하니

궁장을두번넘기또순일안희나지아니  
런들엇디죄인을엇으며란의근본을기  
리싸히리오쇼리기러드득이고그림재  
얼굴노배니오미가히취신이훈가지로  
버힌배우어시마안히다래는듯후를볼  
거시오춘득이십칠세아희로능히부르

는소리를김핀밤창졸가온대분변호야  
거쫓자는데호고더답을아니호야되만  
히동정을여어공연디공만고업스동역  
으로호여곰도망홀배업서잡히인되나  
아가니즈못황턴 조종이이테호시려  
면명호심깃흔디라미참너무고의일과

호임동이정방도리  
고쳐주호일이라 추던 게능동이찬이  
추던호려호단

말의 호려호는외이롤인호야드러나디

아난거시업스니하늘의 성인을보우

호심이과연엇더호노슬프다저적위의



한즈음을당하야난한누쌍지지시죽기  
스름브리고 우홀호위함이가히하늘과  
상사름이힘을호가지로호다나르려너와  
이날일에나르려는역적놈이스스로와  
몸을바티거놀적은아히안자귀특호공  
을엇으니오회라이엇디인력의능히미  
출배리오신이그커므로호초배하늘도  
오심이당령호음을복혀버란신과적조  
를두렵게하야그모음을셋거감히다시  
간홍호쇠을곰초와쌍련의불으신명을

거로디못흐게흐는이다

김슈대와김흥조와감녕파정인등을국문하  
야다복슈하다

슈대는곳세복의초소에전소약으로세복  
을비설방고직하이물도모하던놈이니일  
명은홍복이라이에니르러잡아도치하민  
정절을국문하니슈대공사하되신이무녀  
점방의자아비김흥조로더브러의로미자  
스촌이되야즈조서로왕리하야일을대소  
업시더브러의논하더니금년이월에신이

집사기를위하야홍조의집에가니점방이  
종괴병으로누엇거늘신이그병을못고소  
신의어린아들의길흉을무르니점방이  
오디내비아호로긴급호일이이시니후에  
맛당히위하야점하리라신이곧오디무스  
일이노점방이곧오디홍술히집에서날드  
려그노허도라오기를점하라하느고로점  
하니그점이주못길하디라안일사툼이이  
셔가온데를조차유선하면맛당히요리이  
치리라신이곧오디무스요리노점방이곧

오디홍술이집에셔몬져돈소십냥을보내  
야익덩소속을사피여테결함을도모하나  
일이일면맛당히소빅냥은주로베두터히  
갑흐럿노라하니네익덩소속에길히이시  
니능히도모할소냐신이이말을드르매복  
심에모음이능히아나옴즉이디못하야일  
노브터왕리하물터옥조조하고친말하미  
틈이업스니이에정방이소십냥으로베신  
을주거늘신파홍죄반씩가지고정방이골  
오디궁금에쥬션하도리반드시복심에사

룸으로 배갈이 대컬안긴호소임에잇게  
호후에야일이가히될디라최세복은술히  
의종으로술히의적소에왕리호야무양그  
님자를위호야호버축을무옴이잇고그겨  
집이또호내집에출입호니만일세복으로  
버비설방고직을호이면가히귀를타게  
교를받뵈새시니네그도모호라신이골오  
뒤내소촌김복상이비야호로별감이되엿  
고그소촌누의또궁네니이일은쉬우리라  
그후에복상을보고만히도치호일을닐

은즉복상이디답호야늘으되만일의렬궁  
태지중판의게청족호면가히어드리라호  
더니이히오얼에점방이병드러죽으니술  
히의체겨집종을보내여얼냥돈으로부목  
호고이후논홍죄체겨집을더신호야술히  
의집에왕리호야기만호일을참여호야듯  
고산도또호을칠월에셔과와망건등을을  
풀기론연호야행호야광늘네니르러술히  
의집을디나다가드러가술히의쳐의안부  
를못고술히의겨지조이의게보리방을사역

고 그 후에 또 술히의겨 집종을 지낼길우히  
셔 만나신이 또 날으되엇디 하야 네지아비  
로 하여곰 비설방고 직을 하게 할고 하니 대  
개 비설방고 직은 주비지근지디에 출입  
하고 세복은 효용하고 검술이잇는디라셔  
복으로버비설방의잇게함이 장차도승지  
를 해하고 또 불감인지디에 불감인지디는  
다말이 맛기를 새함이라 첨방이사라실제술  
히의체막양언문편지로버주조첨방의게  
보내면첨방이 보고문득불지르니신이그

언문편지가 온대 말을 약간 드르매 저 주홍  
알이 만흔디라 점방이 모양 초희로 배사름  
의얼굴을 민드러 부작파흔가지로 여러 곳  
에 널니 못고 또 오방귀신을 그려 집비람벽  
에 브치고 형을 외와 비더니 밋점방의 병이  
심후애신드려 날너 줄오더내 병이 만일 나  
으면 맛당히이 계교를 일위 베풀히의 원슈  
를 갑흐리라 하니 신이 실노란 만히 정절을  
아니이다 슈대 복상으로 더 버러면 질후니  
복상이 슈대드려 날너 줄오더네 과연 도치



홀일노배날드려닐으나그러나의렬궁태  
지중관이마츨릉소에갓는고로닐은디  
못흐엇고다른흉흔썩는듯디못흐엇노라  
슈대복상드려닐너골오디흉흔쇠는가히  
사름마다닐을써시아니매파연너드려닐  
은디아니흐엇노라김흥조를국문하니흥  
죄공소흐되신이본디교동사름으로셔점  
방이라칭호흐읍느무녀를겨집삼아셔을  
올라와사온후에술히의집에친밀함의노  
복과다르미업더니밋술히귀향간후금년

이월애김슈대신의집에너르러신드러닐  
너골오디홍술히노힐도리잇느니라호거  
놀신이술히의집에친밀호고로그말을듯  
고깃거골오디엇디호야노히리오슈대골  
오디다만호가의겨집총을블너오라신이  
호가의겨집총최세복의겨집된자롤블너  
더브러서로보게호니슈대닐너골오디내  
누의니인이이시니맛당히위호야쥬션호  
야반드시네령감으로호여곰노히여도라  
오게호리니만일지롤이이시면일이가호

일나라 홍가의 겨집종이 그 집에도 라가 주  
시 십삼냥돈을 보내고 그 일일 우물당부하  
논고로 슈대 논삼십냥을 가지고 신은 십냥  
을 가 져 오 되 저 주 하 논 일 에 너 르 러 논 신  
이 전 허 아 디 못 하 논 이 다 감 령 을 국 문 하 논  
감 령 이 공 소 하 되 술 히 귀 향 갈 새 예 저 주 하  
논 부 작 을 퇴 침 속 에 곱 초 와 가 고 그 후 에 신  
이 술 히 의 처 의 지 휘 를 바 다 돈 오 십 오 냥 을  
가 지 고 정 의 와 함 석 흥 조 의 집 에 가 그 겨 집  
무 녀 점 방 으 로 터 브 러 훈 가 지 로 무 녀 이 솟

막의나가져주호며귀도호는일을호옛습  
고흥죄닐으되요리이시니만일죄물을만  
히어드면가히네령감으로호여곰노혀도  
라오리라호야놀신이그말을즐겨듯고술  
히의쳐드려닐으오니술히의체스십냥돈  
파면주호필파판복호벌을신을주옵거늘  
신이가지고점방의집에가니점방이오방  
우를물을깃고또술히의집우물을깃고또  
도승지흥국영의집우물을기러합호야호  
그르시담아술히의집우물에붓고또주사

로 두 화상을 그려 호나 호 호 응지라 일 것 고  
또 호나 호 아 모 성냥 반이라 일 것 큰니 못 불  
삼 언 지 디라 나라 흘니 살 노 버 두 화상에 곁  
고 인 호야 초 교를 두 고 술 희의 집에 나르러  
술 희의 처를 보니 술 희의 체 보고 도로 점 방  
을 주어 호야 곰 맛 당히 무들 곳에 못 게 호고  
점 방이 또 활 파 살을 민 드려 공 중을 향 호야  
또 먹 큰 오 디 이 거지 사 롬을 반 드시 죽 게 호  
는 법 이 라 호고 또 저 주 호는 부 작을 버 제 지  
아 비 큰 호야 곰 흥 국 영의 문 압 길에 가 못 어

곧오디그사롬이반드시죽우리라흐고흥  
죄다시신드려닐너곧오디궁녘의유부이  
셔내터브러친밀흐니만일은을만히어더  
회로를헿헿면니안이죄물을탐흐야반드  
시요리이시리라흐노고로신이그말을기  
더듯고또흔솔히의쳐의게전흐읍고상히  
말슈작흐을써에말이 나라희밋조오면  
일컷기를문두아모성냥반이라흐더이다  
감형어흥조로터브러면질흐니감형어흥  
조드려닐너곧오디네그이기를궁녘의유

부이시니이길을인양야회로틀헛헛면귀  
향간필히가히도라오리라하디아니흐다  
내므르되유부뒤노네또닐으되성명은김  
슈대요또궁녀로배싱질을삼아시니그형  
세심히크다아니흐다내네말을들게듯고  
배흐도맛당히겨집상년의게고하리라하  
니네또곧오디일이루설하기수우니반드  
시머리롤덥고 속담의을우 계왕리하야사  
름으로하야곰보디못하게하라하거늘내  
네알과구티도라가겨집상년의게고하

정이라도 더브러 돈과면쥬와판복을가지고  
또네집에가빌고제하니네겨집점방이오  
방물을기러방법을하고쥬사로화상을그  
려살을그우희것고또부작을버블노호어  
곰가모드라하니이곡절을네감히아디못  
호노라호라흥죄감형다러닐으되네집일  
을네다로실하니네비루엄휘하고저호들  
어드랴호일업다하고흥죄드디어공소호  
되솔히의체과연감형으로호여곰신의겨  
집을와보고그지아부귀항가므로버반드



시도승지의게감심하고저하야부작을버  
그출입하논길에못고또쥬사로두화상을  
그려살을그우희결이니하나흔도승지를  
고르타미오하나흔불감언지디로마르티  
아라라나하하나또공인중예슈대의절근하  
겨레를인연하야회회를하하야하하일을  
발외고저하니이런일을다감당의말마티  
하엇나이다정이를국문하니정이공소하  
되신이일즉무녀점방으로터브러서로친  
하디라술하이의체감당으로하야곰점방을

가보고저주물ㅎ려ㅎ야선으로ㅎ여곰그  
집을기르리라ㅎ논고로신이드되여감령  
파흐가지로그집에가발고져ㅎ니대개술  
히틀위ㅎ야노혀도라올게교를ㅎ이오또  
도승지를해코져ㅎ이라또쥬사로두화상  
을그려ㅎ나흔도승지라일컷고ㅎ나흔아  
모성냥반이라일꺾르니꽃불감언지디라  
색양살노써그그림에겨러공중을향ㅎ야  
쓰고인ㅎ야동셔로화드너이느전혀  
술ㅎ이를위ㅎ야보슈ㅎ이라점방의친ㅎ별

감의닐의되은을만히허비호야제족속니  
인된쟈를교통호면가히일을일우리라호  
고인호야신의지아비세복을권호야비설  
방고작을호야귀들을타변을짓고저호니  
모역호를시탁실호오이다이에슈대와흥조  
와감녕과정이등데홀아오로결안정형호  
고노적호기를범대로호다  
병오에흥술희의쳐효임과밋그첩개련이복  
쥬호다

삼시계소호야청호되술희의쳐효임의역

절이 고금에 뜻지 못호배니 가히 부녀로 배  
거릿겨아니 못디 못호을 하시니 맛당히 금  
오로호여 품발포호야 궁희호하시니 이다  
호니 조츠샤이에 효임을 국문호니 효임  
이공소호되신이 과연작년후로 브터 양양  
호야 나라호원망호야 신의 아돌샹범으  
로더 브러 빅게로 틈을 여어 반드시 국가  
에 감심호고저호더니 금년 칠월에 김홍복  
이란놈이 스스로 반감이로라 일갓고 신의  
아돌을 광노로와 츠즈니 신의 아돌이 마춤

용인썩희갓노디라홍복이스스로닐으되  
내뵈날문하의출입하더니라하고인하야  
신의집종을블너신의게안부를뭇고또집  
종드러블너골오더만일은주소빅냥을어  
드변령감이조연노허도라을도리이시리  
라하야놀신이은이업노라더답하엇더니  
그후에신의종의계집정이본디홍복으로  
더브러서로치하디라정일이일즉닐으되무  
당이칭호를점방이라하논재이셔심히령  
하니안일져주잇일을하면령감이맛당히

도라오리라신이 드덕여돈오십오량을주  
고정리와감등등으로하여금점방의집에  
함씩가빌고제하니정이다와그형상을  
닐으되흔제상을베퍼밥과혁파실과와는  
물을기초고점방이스방을향하여잘고  
춤추며방법을하니방법은차는점방과  
그지아비홍죄라후조희사됨을민들며후  
우물물을기르며후물형을그려버져주  
는일을형하고서로주사로두화상을그려  
생양살을겨려하나흔아모성낭반이라일

크르니 나라흘닐은미오흐나흔도승지  
라알가라혹길섯에으드며혹집뒤에으드  
니쳐주홀시덕살흐고또비부히근이비야  
흐로정원가소령이되엇고홍복이또반감  
인고로궁인을인연흐며환시를테결흐야  
세복을비설방고직을도치흐야과리대  
결안희이셔귀를을타홍은일을발빌게교  
를흐고신의야돌상범이홍문파롱휘의무  
리를모두흐야드노칼파쇠채를가지고어  
두온세를타대결드러가존현각집놀니

을나기틀을엿보와 우흘범하려할시롱  
휘의쓸니인된자롤언약야하여곰기응  
흐게흐고룡휘의친흔바무로비오십을모  
드와뒤흘쓸와관망허터니그계교를발뵈  
다못흐매미쳐는또흥문을써와기만히  
대켄담을넘어망츙흔일허기롤도모흐엇  
소오니모역흔시덕실허와이대개련을국  
문흐니개련이공소허되신이술논의의집에  
이실썩에다라우리에밤을지어기도흐는  
형상을보고또술허의체감녕과정의무리



를보내야돈을가지고무당의집에가져주  
하느일을보고신도또향하나라원망  
하느모임을품어효임으로더브러힘을훈  
가지로하야안호로즈킵파벗그로져주호  
일을다동모하였느이다이에효임파개련  
을릉지쳐소하고노적하기를범대로하다  
○홍필히느꽃홍문의초스에홍동지란놈  
이뇌상범의초스에상간을기르쳐모역훈  
놈이라역옥이니러난후에도망하야비디  
아니하터니이에니르러순경하는군시필

히를 청퍼셔 잡아드린디라 드디여 필히 이를  
국문하니 필히 공소하되 신이 무과 출신으로  
로점어셔 브터 상간의 집에셔 환양하였더  
니 상간이 복법후에 상범과 상길의 무리  
미양 나라 원앙하느니 미음을 품어 상히 말  
하되 반드시 원슈를 잡히리라 하고 상범의  
거 집종감덩과 정이와 상길의 거 집종종례  
미양 상범과 상길의 브림을 드리익 덩소속  
을 피통하고 또 니 귀동이란 놈이 이서 예문  
판형직이로서 상간의 겸종이 되고 그 족속

이공인이만하니 상범파 상길의 우리 밤마  
다 세겨 집종을귀동의게 보내야 반원하며  
결남함물도모하니 그공흥한쇠귀동으로  
하여 품공인을세고 밤을타 침실이라 침에

드러가고져함매니 르러극하니라 신이이

말을듯고또함우지저어나그러나 신은무

뵈라지식이업서 감히고 변을못함엇습고

상길이일즉고양싸희가그외삼촌숙모를

보고오니그외삼촌숙모는곳상로 원편숙  
역적상

의체라 신이그슈작함말을못주오니 상

권이 곧 오디속되닐은되네 교통하느곳을  
나도또흔비복을보내여 교통하리라하고  
감영이또흔도정철의집에왕리하더너이  
다하고또알외되상범과상길의아즈비지  
히린한으로더브러정이형테깃고술하더  
옥흥령하야신회와광유위<sup>영성</sup>로더브러친  
절하야즈조서로왕리하더이다드디여그  
동파밋그누의광은부위궁비영단을잡아  
국문하야여러번무르되종시승복아니하  
다쿠월비유에니르러 전교하야글은사

뒤죄인필히이미지정함으로버지만함여  
사나그러나이런무리를역모에참에함듯  
아니참에함듯함뒤부쳐대섭으로더브러  
함가지로광강지면을베프미구투여형벌  
을일함이나니감소함야절도에안치함  
고죄인귀동은환시의난육함거소로서상  
간의결근함놈이되여중관의방직이로부  
터종부셔리에올마남아와<sub>을</sub>효신의<sub>아</sub>복시  
에<sub>을</sub>승판의<sub>아</sub>좌우로부리이다가이번필히  
와역적상길등의초사나매너르러는역적

상간의성전홍계와소후음뢰이에나타난  
더라대개적도로베즈릭을삼고괴동은가  
온대이셔그누의영단과밋친흐바중판의  
로베드리를삼은일이여러번모든역적의  
초소에나시니구트여다시반문티아닐거  
시나그러나괴수와모쥬이의복법흐엿고  
또계교를발뵈니로더브러논간격이잇고  
흐물며이번치우흐이다경흐를조차시니  
괴동은절도에감스안치흐고영단은극변  
에명비흐라흐오시니이에필히느겨쥬안

치하고 괴동은 가리포에 안치하고 영단은  
삭취찬비하다

신등은 삼가 안하오니 늘 문묘건에 으르

태역을 슈류홍이 아들에 밋고 처첩은 노

비를 믿들고 죽이다 아나 홍은 거집이 약

하야 참에 훈배업서 모로 베타라 녀 주로셔

몸소 시역을 범하야 시쵸에 날원재

재사리에 정번 고금에 오직 광현

단말이라 라 하나 이로 뒤 현은 귀척이라 금밀을

의체 의지하고 유의

원하산의 를 테 결하야 그 세

를인하야 흥호일을 발의 엿거니와 쥬형  
명부로 버안호로 무고로 흥어 밧으로 쥬  
직을 모득하야 방저히 망측호도 모를호  
기엇디 효임코 흥재이 시리오 슬프다 호  
입이 그 집은 린한의 외족이 오그 지아 비  
난 슬히 오그 아들은 상범이 오그 지아 비  
형테는 지히와 찬히 오지아 비형테의 아  
들은 상간과 상길과 상격이라 일문에 효  
경이 창져서로 쥬이여 모릇 우홀원망  
하야 무음과 나라 흥호케 할 쥬를 나만



히 서로 맞디며 바다 하늘을 구르 티며 싸  
할 그 어문득가 덩뵈이에 다반을 삼느고  
로 비루부녀의 유약함으로 토니 기무드  
러 그 군부론가 히원취라 함며 하늘을 가  
히 쏘리라 날녀이 공홍구악호거조를 함  
기에 나르니 엇디 할노그 현성이 요특함  
야 그러 할 썬이 리 오슬프다 인심이 오래  
함 나 함야란역이 거포나 니 처련 귀근으  
로 브터 비로서 세족거 실이 미 처 구을 너  
만 연 함야 심 함기 부네 역적의 괴슈되기

르러자고머은다닐은교로내너를가보  
고은연교를므른즉네곧오티집안서적을  
슈습항기를위항며또가히홀일이있다항  
고인항야여러곳편지를배종례로항여곰  
전항니그항나흔거동의집이니궁금을교  
통항야바로 침니예드러가거를외함야  
라네쌍간의죽으므로브터일야에 나라  
홀원망항니엇디이흥모를아니항여시며  
또네일즉네외삼촌혹모상의처를가보  
고고슈작항턴말노배날드러전항재무비

제도로허나를죽이고져흐는다이에다시  
상길을국문흐니상길이공소흐되흥도를  
테결흐야 침니예변을지으려흐니모역  
흙이덕실흐와이다뭇조오시디네테결호  
밭재뉘노공소흐되귀동의겨레니인된재  
로소이다뭇조오시디홀노니인뉘아니라  
또호반드시중판을테결흐재이실거시디  
직고호라공소흐되계산말신의집건넌편  
사는안국리로소이다뭇조오시디궁인은  
뉘노공소흐되귀동의스촌슈진방을사는

이 늦디 아니 타흐는 디 라므릇 성궁을 모  
해흐랴흐는 일을 신이 다 참습흐여 시니 룡  
휘흥문히근등은 비록 상범의 결납호배오  
나 쇠복이논 신이 과연흐여 품귀들을 보아  
작 변흐라 하엿는 이 님 못조오시 디네 성궁  
을 모해흐고 그 후일을 장춧엇디흐파져  
던 다공소흐되 종실쥬에어진 자를 곧희랴  
흐터니 이 님 못조오시 디 귀노공소흐되  
왕손이 착흔물망이 이 시니 추디흐랴  
니 이 님 못조오시 디 추디홀썩을 놀노더브

홍섭홍락임기튼자는가히장임을흥영즉  
흥고니튀슈기튼자는가히번임을흥영즉  
흥고반구병훈의아들의원기튼이는가  
하곤임을흥영즉흥나이사름들이만일위  
가놉하면가히점초로일을닐을거시오락  
임은척리니이제비룩쓰이디못흥나오래  
면맛당히병권을잡을새시니또호습진흥  
새에일을닐을조각이있다흥며또계능이  
배흥되반정흥을새를가히십년을경영흥리  
라흥터이다흥모상의흥새예니튀슈민흥

흐엿나이다 계등의 종긔복이로흐여곰면  
질호대 늦복이 곧 오디금년나모님될썤에  
네황가성가진종으로흐여곰견마를들니  
고와우리상현을보디아니흐다량식을빠  
가지고와밥지어먹고우리상현은망구석  
에안쇼너는방후에안즌거술내지금거역  
흐노라흐며또구아오회슈의알원바출간  
에탁슈두번계능을가보왔다흐는공소로  
베탁슈를빈대탁슈공소흐되원컨대지정  
블고르베지만을흐오리니홍모를과연드

금년삼월이니이다 못조오시더네게희반  
정하<sup>정인묘표</sup>던일을<sup>정인묘표</sup> 반<sup>정인묘표</sup>하<sup>정인묘표</sup>고저하<sup>정인묘표</sup>더니라하  
나게희반정은<sup>정인묘표</sup>광<sup>정인묘표</sup>히실<sup>정인묘표</sup>덕<sup>정인묘표</sup>의만<sup>정인묘표</sup>하<sup>정인묘표</sup>므로써호  
연피어나와너희무리<sup>정인묘표</sup>린<sup>정인묘표</sup>한<sup>정인묘표</sup>의<sup>정인묘표</sup>복<sup>정인묘표</sup>법<sup>정인묘표</sup>하<sup>정인묘표</sup>를  
인하<sup>정인묘표</sup>야<sup>정인묘표</sup>이<sup>정인묘표</sup>런<sup>정인묘표</sup>일<sup>정인묘표</sup>을<sup>정인묘표</sup>하<sup>정인묘표</sup>나<sup>정인묘표</sup>공<sup>정인묘표</sup>소<sup>정인묘표</sup>하<sup>정인묘표</sup>되<sup>정인묘표</sup>다<sup>정인묘표</sup>만<sup>정인묘표</sup>골  
오<sup>정인묘표</sup>되<sup>정인묘표</sup>일<sup>정인묘표</sup>을<sup>정인묘표</sup>드<sup>정인묘표</sup>연<sup>정인묘표</sup>후<sup>정인묘표</sup>에<sup>정인묘표</sup>삼<sup>정인묘표</sup>왕<sup>정인묘표</sup>손<sup>정인묘표</sup>을<sup>정인묘표</sup>츄<sup>정인묘표</sup>디<sup>정인묘표</sup>하<sup>정인묘표</sup>렸<sup>정인묘표</sup>노  
라<sup>정인묘표</sup>하<sup>정인묘표</sup>고<sup>정인묘표</sup>반<sup>정인묘표</sup>정<sup>정인묘표</sup>하<sup>정인묘표</sup>일<sup>정인묘표</sup>은<sup>정인묘표</sup>닐<sup>정인묘표</sup>으<sup>정인묘표</sup>디<sup>정인묘표</sup>아<sup>정인묘표</sup>니<sup>정인묘표</sup>하<sup>정인묘표</sup>더<sup>정인묘표</sup>이다  
드<sup>정인묘표</sup>티<sup>정인묘표</sup>어<sup>정인묘표</sup>모<sup>정인묘표</sup>역<sup>정인묘표</sup>동<sup>정인묘표</sup>참<sup>정인묘표</sup>으<sup>정인묘표</sup>로<sup>정인묘표</sup>결<sup>정인묘표</sup>안<sup>정인묘표</sup>하<sup>정인묘표</sup>니<sup>정인묘표</sup>이<sup>정인묘표</sup>으<sup>정인묘표</sup>고  
하<sup>정인묘표</sup>고<sup>정인묘표</sup>하<sup>정인묘표</sup>야<sup>정인묘표</sup>글<sup>정인묘표</sup>이<sup>정인묘표</sup>샤<sup>정인묘표</sup>디<sup>정인묘표</sup>네<sup>정인묘표</sup>부<sup>정인묘표</sup>되<sup>정인묘표</sup>나<sup>정인묘표</sup>히<sup>정인묘표</sup>칠<sup>정인묘표</sup>십<sup>정인묘표</sup>이<sup>정인묘표</sup>갓  
갑<sup>정인묘표</sup>고<sup>정인묘표</sup>네<sup>정인묘표</sup>어<sup>정인묘표</sup>미<sup>정인묘표</sup>션<sup>정인묘표</sup>혜<sup>정인묘표</sup>경<sup>정인묘표</sup>공<sup>정인묘표</sup>교<sup>정인묘표</sup>되<sup>정인묘표</sup>너<sup>정인묘표</sup>내<sup>정인묘표</sup>심<sup>정인묘표</sup>히<sup>정인묘표</sup>공

그때 정승이 영순을 부촉하여 일평하인을 잡아  
아다스리라 하니 영순이 그마르치물조차  
잡아다스릴 시이에 공좌중에셔 부마의 일  
은 답허곰 초고은 연히 불감 언지 디로도라  
보내야 도그 일 보을 나라 외로 부도흐 말사디  
이시니 흥은 무리의와 언은 보쳐 내야 인심  
을 파 후 고 게 하 야 비 동궁을 위핍홀 계교  
를 쇠 호 는 재 실 노 이 에 비 로 서 난 디 라 사 름  
들 이이제 나르히 분완 고 히 통 고 디 아 니  
호리 업더 니이 에 나르러 상길과 감형의 공



제 쥐에 안치하, 고원철은 괴 장에 찬비하니  
냥식게소하, 야영순의 관작 추탈함을 쳐오는  
대 상이 조츠시다

에니르니 스펠다 세변이 이에니르러극

호도다

귀유에 홍상길니 틱슈를국문호야아오로복

쥬호다 ○민홍섭의 판작을 쥬탈호다

상길은 꽃념히의

거희의아  
둘이각

아돌이오상범

의소손이라 홍필히의 공소를인호야발포

호엇더니이에니르러잡아국문호니처음

은더뢰호더니 및필히로더브러면질호매

필히상길드러알호야골오디칠월이십소

일에네상범의집으로브터종례의집에나

구영영영정결이니네엇지감히발명하리오  
상결이필히드려닐으되거동은대결안  
희왕리하는고로요사이서로더브러보디  
아니하여시니바로침년에드러가려하  
다함은처음듯노라필히상결드려닐으되  
네조조겨집종을괴동의게보버야하여곰  
그친흔바니인을테결하야침실에드러  
가그흥흔색를형하기를도모하노라하고  
네날드려닐으디아니하엿나상결의을  
오되네우리집은혜로배자금상장하고이

재너의 다뭇조오시더네안국리집에갓더  
냐안국리가네집에갓더냐공소흐되신이  
국리의집에갓고국리논아니왔느이다뭇  
조오시더어느세에국리의집에갓던다공  
소흐되년전에수태를왕리흐고을칠월스  
므나흔날저녁에선국리의집에가신이곧  
오디죽은자는흐일어업거니와산자는어  
느새에가히도라오리오흐고인흐야국리  
로흐어곰다른좁관음모든흐야힘을아오  
라도모흐라흐니국리곧오디다시의논함

러호가지로호엿느노공소호되홍계능이  
몬져이썩를호야삼소월간에계능이그아  
들신히와밋족하니히를버리고신드려닐  
너골오디이제 주상이실정인만호시니  
가히츄더호느거죄업디못할거시니 인  
조조에반정호시던일고티호리라호더이  
다못조오시디동참호재취노공소호되민  
홍섭너확쉬그썩를아느니이다츄더호려  
호느절초를못조오신대공소호되태갑의  
네일 태갑은은썩닝군이니며  
호야등중에내치나라고치호고민

섭이신존계능의사량에모히여생하니이  
다이에상길을등지쳐소하고노적함을범  
대로한다드미여홍신히니히안국리를국  
문하니다승복다아니하고경폐한다니  
슈를국문하니팅쉬공소하되신이일즉계  
능이로더브러언약하야월파하야들마다  
반드사가보고들마다반드사편지하야무  
러거의빈들이업더니작년십일월에인언  
을만나삭출하매일노브터문받흔거름을  
나디아니하여시니금년은실노가보디못



추히더기논다라고쳐지정블고로버블  
안흐라하시너이에지정블고로버블안정  
법흐고홍섭은전월애이득죽은다라던간  
이게소흐약츠탈흐고익원은경원부에찬  
비하다

경술에도영순의판작을츠탈흐고그아들정  
철과원철을히도와변군에찬비하다

선시에괴츠탈간에훈부매익당하인을세  
고밤으로모도어든너려항에작란흐논디  
라영술이비약호로형조참판을흐엇던너



수에 다름이 되어 여러 번 편지로 배밀밀히 정  
철의 계왕복항였노라 항나정철은 못지하  
의 사회라 드디여 정철과 밋그형원철을 발  
포항야정철드려 못조오셔 골으샤 디네한  
아비충의공은 고상도  
위쳐우 왕실에 진심항야몸  
으로 배나라 일에 죽엇거늘 너희부조는 도  
로 허역적을 붓조츠니 비록네한아비를 씩  
각항야행벌을 디어디아니항나역적의당  
된를이 야엇디가 히도 망항리오정철이 승  
복디아니 항대 명항샤감수항야정철은



속명의 특권이

조팔월신희지무술이월임즈

팔월신희에홍상격이부쥬하다

상격을국문하니상격이공소하되소얼에

계능을보고쥬디홀일을하가지로외홀시

계능의아들과죽하와밋만홍섭니턱쉬좌

상에잇더이다하니결안하야정범하다

병진에홍계희판작을쥬탈하다

삼시계소하되홍계희성품이요샤하고히

신이음비하야밤낮경영하년배나라희홍

흥고집에 해롭게 흥이 아니미 업스니 과거  
와 벼슬을 도적흥기논 특별이 그여시라 흥  
번구를 너지희상간의역절이 되고 두번구  
을니상범상길의흥되니 오날날란역의  
근본이 일쥌일석의연피아니라 그근본을  
구희흥면계희평일에 작용흥연피아니미  
업스니 계희로 흥여곰어시면 비록머리를  
보전흥고져흥나엇디어드리잇고 청컨대  
흥계희관작을 추할 흥여지이다 흥대 조

츠시다

형소에 흉술히 복주한다

술히를 국문홀시 못조오시되네 역적상간  
의아주비로 역적상간이 복법후후네 절도  
천극한가 온대이셔 반도시 국가에 감심  
고저함은 일세의 다아논 배라네 아둔상범  
이소소로 모득하야 비슈를세고 궁중에드  
러와우홀범홀게교를고저하며네 안히  
효임이오 괴로운우당을테결하야 흉하거  
솔무드며져주를하야부도호일을짓고저  
하며네 족하상길과상덕이게능을부동하

야역적찬을츠티호야망즉호변을짓고저  
호니네몸은비록먼디이시나그계교를베  
프며역적을외호은다너의쥬장호배라정  
철이탈로호어시니일일히직고호라솔호  
공소호되져주와조릭과츠티호려호닌호  
모의대테는다신의지회호이로디그저근  
극절은신이또호주세히아디못호오니그  
광복호던사름은못복돌이와득소와갈무  
쇠와개동이와득지니 다솔히의공을복얼  
에득지신의적소에오을새에신의안히닌

흥흥거슬못난 일을편지에귀별하고신의  
아들상범은주직을모두하야 권중에드  
러보내논일을편지에귀별하고신의족하  
상길은또게능의츄디하려하논흥모를편  
지에귀별하엿소오니그편지에하여시도  
게능이본디형세만하하고저하논일은못  
하일업다하엿더이다드디여솔히를능  
지취소하다  
귀미에종실찬을하여몸조딘하게하다  
처음에게능위찬을츄디하려하논일이상

길의공소에나배대신이배호되역당을오  
히려다구획디못하고찬이 왕실지친으  
로일홈이츠티예드러시니그잡아무르이  
호색롤더디디못호리라호야힘배잡아무  
르를청호대 상이즉시니르샤쇼츠에드  
르시고오래나오셔쟁현에 던좌아니호  
오시니대신과경지들이여러번입되호음을  
구호되엇디못호니이에대신경지들이문  
을헤티고드러가스기급호며국셔위뒤호  
을다알외고궁성호위호을청호니 상이



허허신대대신이해또찬을잡아무르름을힘  
써청허되 상이므춤내허티아니하시니  
대신이곧오터일국사름의훈가지로치는  
배니 성상이또훈맛당이알너디못허실  
디라밧비탐전 하교 전교로부로서디아  
나훈교승제합전에  
서바로배내 로써거허함을청훈대 상이  
능히금타못허신디라이에찬을가도왔터  
니밧상길등이복쥬허매대신과삼소와종  
친과문신남허호반빅판들이 던덩에영  
디어날마다여닐곰번계소허야찬을버히

를 청하고 관호 선비와 파산호전함들 파군  
문장교와 의원역 관각소하인파오부방민  
사디나르히드도아상소호야힘베드도되  
양이오히려허티아나호시고그차즈와  
게스에비답호여골음샤디쥬공은성인  
이시나변을당호야권도를회호엇거나와  
성인의덕이업시셔성인의권도를회호음은  
또호드디못함이라호시고또골음샤디오  
늘일이판채 관속채수는쥬공의동성이니  
은나라무경파호하지로만  
야쥬공을해호려호어 의자최이시나판채  
쥬공이처버히시

의망은 업스니 판채를 다스리던 법으로  
결단함이 실노 참아 못하노 배잇노라 하시  
고 또 곧은 샹더 군신지간은 서로 망음을 알  
물귀히 너기느 너 오스어 경상파 권도 잇의  
와 망음과 차 최의는 호이므로 배비 답을 하  
여 지니 스스로 배하되 보고 듯는 재 거의 세  
드를 싸 하엿더 니 이제 텅 청계스를 보니 그  
인 증 훈 배 곳 이 결 쵸 에 이 의 흥 흥 신 일 이 너  
저 세 사 름 은 대세 조 효 에 안 평 의 군 용 파 금 성  
대 군 효 와 인 조 효 여 인 성 군  
연 이 니 다 의 류 에 간 스스로 하 늘 의 버 히 시

물범흥이 너엇다 두스 조종 쇼애 사랑 파은  
혜일흥나미진흥시미이시리오실노배  
종새중흥시매스스은혜도로허경흥연피  
라의제만일세사롭의일에기튼재이신숙  
또호맛당히우러러넷법을닛고면강흥야  
모드모음을마초와류테흥야조차도가흥  
고오열흥야허흥도또흥가흥되이러트시  
곳게악기롤마더아나흥기논엇디연피업  
소리오슬프다나의정스를닐으고저흥즉  
소리의의미치고쓰고저흥즉눈물어른저

저즈니. 고로한여성이엇디날고튼재이시

리오령원의회포와형슈의의지함이<sub>형슈원</sub>

<sub>는형태에비호기신라</sub>오직셔테세사름이이시니진

은<sub>은라신군</sub>브람파이슬에병든배되야불회

이일죽고인은<sub>은연군</sub>나히잠안만흐되상

히질병에얼히이고오직찬이다행이병이

업소니모양배하되거의성님하야종실이

안히브러 선부의조손으로하여곰내쥬

명에서면거의 구로하오신은헤를만분

에일이나갑흘가하엇더니흥역이작얼하

야찬의 일흠이 슈덕에나니 오회라 귀환에  
즈라나 몽애호야 지식이 업스니 제 슈덕가  
므스일이 몰알니 오나의 정스느 냷스 귀에  
구호야도 비호리 업스디라 그런고로 두  
초종쥬전례를 아디 못흠이 아니며 또호은  
혜를 쓴코법을 퍼블 아디 못흠이 아니며 또  
미참내 참아 못호는 밧자느 그 또호슬 픈디  
라 말이 아에미 태매 최통호고 측상호다 호  
이 오히려네 솟말이니 다시 또엇디닐으리  
오호시니 제신이 합문에 업디여 밤을 새오

기에 이르러 너 및 친국을 파함대 대신이  
옥교를 밋들고 드로아 청하니 상이 희  
정당들에 옥교를 머므로 시고 압호로 나아  
가디 못하시기에 너를 디라 상이 어의안  
호로드르시매 또 제친드려 결단호야 좃디  
못호실 뜻을 면유호신대 대신이 금부당 상을  
거느리고 금부에 가찬드려 늘너 호여 품주  
진호게 호물 청호대 상이 또 허티아나 호  
시니 대신이 하교를 기다리디아나 호고  
가물알외고 드디여 바로 금부에 가찬을 쉴

에 살니 고닐너 곧 오디네 역적 무리의 추디  
 흠배되여 시니 만분에 일도 사디 못흐디라  
 상이 비록 총아 너를 죽는디 두디 못흐시  
 나네 만일 신분 이이시면 엇디 가히 흠닌들  
 살니 오찬이 항거흐야 좃지아나흐니 대신  
 이다시 청디흐야 알외되 꽃이일이 이의신  
 분이 업스디라 스스흐를 청흐되 상이 오  
 히려지란흐시니 대신이 승지로 향여 품조  
 진흐라 흠을 탐전령탈 제신의 탐전에  
알의 말을 승지가  
 거시라 노배내를 청호대 상이 마디 못흐



샤디답은 아니흐시고 좃는 뜻을 보시다

구월경묘에 홍지히복쥬흐다

지히를국문흐니지히즉시승복디아니흐

거닐전후죄인의결안으로버늠려닐너지

히로흐여곰듯게흐니지히공소흐되조직

과홍호거슬무든얼과쥬디흐려흐는일은

전년십월부도에귀향가실쎄예상길의편

지를인흐야아라뵈고을삼스월간도쥬에

귀향가실쎄도상길의편지를인흐야아라

뵈오니올히편지전호자논신의쥬전쥬량

덩개셔사노협쇠오전년겨을편지전호자  
논온성관하인이을소이다결안호야정범  
호다

경오에홍찬히복주호다

찬히를국문호니찬히공소호되전년팔월  
후산도이실새예비부복룡이의복과편지  
를가지고왔습노되그가온대상길의편지  
잇소오나신이맛당히결안호오려니와결  
안이심히중난호거시오나신이맛당히종  
두지미히귀귀씩,라입으로브르오리이다

호고안호야결안호야글오디신의집이전  
년브러역적의집이되야상히원망호고호  
호호모음을품엇습더니전년팔월에신의  
죽하상길이신의적소에편지를부쳐호모  
를다귀별호습는다호나흔비슈이느게피  
오들빼느호호호거슬못느게피오세빼느슈  
되호려호느게피오나신이일일히왕복호  
야지휘호엇습느이다드디여정법호다

호게능은국문호느게능이승복호고경폐호  
다

그 계능을 국문홀시 못주소시디네 거 죽헛일  
호름을의탁호고몸이 갖가온교외예이셔흥  
호무리의와취되야대쇼의논을쥬장호야  
지휘아니호이업서벼슬용샹호논디니르  
히참섬디아니호미업고호렬상간의무리  
를대북의알파추승호논의논 전편에으로  
부족여일세를의심호고웅즉이게호야타  
일국동시절에드러와정승호려호단알사  
지이시니국개동궁에이실세로브터호브  
채와호고기의반소함이호미진호즉후검

란한 모든 역적이 너를 자중하여 저히고 협  
박하여 나쁘디 아닌 배업스디라 맛이 제의  
리니 계묘하고 역적이 무리를 서치호는 새  
희너니 된 역적이 무리의 큰 괴수된 재오히  
려왕법을 도망하여 시니 이의 형법을 일  
호미 역적이 감히 상과 상격과 민호섭  
과니 퇴수등 모든 역적으로 더 브러 밀실에  
니 만히 새하여 계묘함이 더욱 급하여 태갑  
동공의 말과 계묘반정의 일노 배하호는 복  
하고 나를 쓰지 저너쁘디 아플 배업고 이에

삼왕손을쥬디흐야 및장슈와번임파근슈  
들을비포홀말이이신즉효임의요피로은  
무당을테결흐야홍흔거슬못고하늘을보  
랴흐는재또흐너의역적찬을쥬디흐려흐  
므로말미암고상범상길의무리고만히쥬  
익을인흐야칼을품고대컬드러온재또흐  
너의역적찬을쥬디흐려흐므로말미암아  
신니모든역적의천가지죄와만가지홍악  
흔거시전혀쥬디흐는만흔씨로말미암  
아그후일을하려함이니셀니지만하라게

능이공소흐되문목이전허근소티아니흐  
와이다못조오시디전교훈문목을테감  
근소티아니흐단알노볼만히디답흐가시  
브냐공소흐되상일이전년스끝갈새예파  
연와보왓소오니설스낙낙히역적질흐새  
롤흐엿다흐교점디아니흐거시엇디가히  
지만흐리잇가못조오시디네감히종시볼  
만히쿨싸시브냐공조흐되엇디밧비내여  
버히디아니흐느니잇가못조오시디이흐  
말이곳부도엿말이로다공소흐되태합동

궁말은과연상셔문의를인호야호엇습나  
이다미처결안티못호야즈레죽다

신등이삼가안호오니란신적제네브터  
엇디호이이시리오마논이번역적파고  
른재잇다아나호니대범란역의변이  
양철리에셔너러나는자논그디체갓가  
와님근역핍호기쉽고권세무거위세상  
을기우리귀쉬오므로베라무릇린한후  
검의디쳐권세로베그눈에  
님근이업  
선디진실노이믹오랜디라호를며우리



성상이 춘궁에 양턱호오신날을 당호  
야런디의 공번되시미 스스로 위덤흠이  
업조오시니 이의 족히 담이 썩러 지고 일  
월의 붉으시미 비최디 못흠이 업조오시  
니 또 형상은 도망홀배업스즉 처음은 각  
립호고 그 참내 원슈쳐로 보와 밧과 안호  
로서로 선동호야 변괴 잇디 아나 흠이 업  
스니 대키 쳐위예겨오실새로 브터  
령정호오시기에 나르히 버흔들며 위동  
호는 밧재만 방호로 호다가 빅신이 호위

호는바에너어붉은시미중현호오신즉  
그혈당파소위또바로하늘을싸는일을  
형호고저호야이에상범은조각을모두  
호야대컬드러오고효임은요피로은  
무당을써호호거슬못고계능은또신히  
니희상길상격호섭획슈의무리로더브  
러츄디찬탈호는거조호기를외호매락  
임이그귀틀이되야호모임으로나라  
홀원슈로알고세가지길노역적을써호  
야쥬익에변이호흡에이시니무릇계능

이척리로기특호보비를삼고척리는게  
능으로못과습흘삼으므로벼들히서로  
미자신즉무슨일을가히호디못호리오  
터즈음씩모든역적이권병을도적호새  
롤당호야이의원세상을다자갈먹이고  
오히려혹밧그로공의를저호호야바로  
그권투에드디아니호는새이신즉계능  
의거죽말파우미는거슬비러벼롱락호  
고거두어침침히샤설이런하를밧고는  
줄을씨듯디못호야역적의형세드디어

하늘에 다 하느니라 대려 후범린한으로  
브터 상범효임의게 니르히 배역적된 밧  
재그 길 이호가지 아니라 더옥 날수록 더  
옥 흥흥 되그 권취를 생각흥면 계능이 근  
본이 되느니라 계능의 흥영흥신쇠이 미  
제겨레와 티즈의 초소의 낭자흥야저도  
또 호가히 발명호말이 업스즉이에 감히  
근스티 아니흥단알과 녀녀히모역흥영  
단알과 첨디아닌 사롬이란 말노 배말을  
놀녀만 환흥야 현연이면 롱이근 뜻이 잇

고 밧비 내여 버히라 호호호 말에 니로러는  
은연히 몸을 죽여 절의를 세워우는 자의 어  
법을 쓰니 그 비에 마득히 불을 한 거시도  
모디 이원망하고 호호호는 거시며 입에 절  
노할너 나느 거시 부되 아니 미업소 물이  
에 가히 볼써시니 태갑문의 에의 논호를  
토실호기를 기다리디 아녀 그 호호호 영적  
인 줄을 알디라 호호호 마치 음호호고 패  
녀 호호호로 린한 의사 돈으로 버계 능의 지  
친이 되고 틱슈기 치경사 호고 요특 호호

로린한의성질노버게능의테지되어시  
니이다게능의척리를관통하는소개되  
야얼히이며비저내미이의세월이오래  
고비포하고화응함이또도당이만흔스  
그흥흥색와역결이또엇디츄디하려  
는훈일이이의현발훈자에그칠뿐이리  
오려상범의부조와형테는다이효경의  
베라몬져흥악훈회롤지음이부녀에셔  
나기논또이네부터란역의집에도잇는  
배아니오찬에니르러논왕실지친으

가로써 모든 역적의 마트쳐비긴배된즉가  
총히살니업스니빅판파만민이 대권을  
이진직하여트죄흐기를청함이어러날이로  
이병디오직우리성상이인륜의지극호시  
므로써참아거연히법에두디못호샤  
스륜이측달호샤족히삼름을감동함  
잇고병진일에느리오신바정령게스  
비담에나르러는만등신료늬눈물을호를  
니디아닐재이시리오박브득이호연후  
에미쳐비로소다만조진호게호자호는

청을 허하시교또 흥경연하는

경연은  
종실역

적은로의에  
흥노법역라 네일을쓰디아니하시니

주공후수천히예연을쳐흥야그정도글

일티아니흥재그오직우리성상이신

쳐뵈셔아리맛당히던하무음을슬허

흥재이실디니의여성저라

이년<sup>술</sup>출이월임주에흥락임을친히못조

오시고특별이샤흥야노흥시다

선시에낭시여러번게소흥야탁임국문흥

기르청흥되상이오래조디아니흥시니



때개참아 못흐시미라이날 전교흐야골  
으샤디옥당의상소가온대디게증가비야  
온샤와의심된자를소석흐자흐논의논이  
이시니이정히내뵈에합흐디라만일그의  
심된자의논흐면곳홍락임이웃듬이라  
비록역적의초스에여러번났다흐나오히  
려흐번제게못디아니흐야신즉엇디배참  
것과거쫓거신여부를알나오일노배전후  
모든역적을이의다친히못고쑈결안을바  
든후에법을쓴자는곳흐사름으로흐여곰

원왕흔거솔품고호사름으로호여곰나라  
법에싸디디아니케함이라만일분변호고  
져홀던대엇디적은참아못호느디걸니세  
리오이의 조궁씨품호와와시니홍락임을  
왕부로호여곰즉시잡아오라잡아온후에  
금뷔버알원대 상이장턴에 님어호샤  
대신드려닐너골으샤디이제이거죄비록  
마디못함으로나시나이씨예 혜경궁희  
되엇더호시리오일의호린자롤가히호번  
못디아니티못홀써시르되막음에참아못

흐는배이서지금못흐엇더니종용히싱각  
흐나만일친히못디아니흐면참것파거쥌  
거슬분변티못홀써시오참것파거쥌거슬  
분변티못홀즉양인귀판두에이실디라  
그런고로내이뜻으로조공써고흐온즉  
조공이또흐그러타흐오시니오늘거조  
는실노이러므로배라령의정김상철등이  
콜오더이하교를받조오니감동흐는논  
물이스스로써러디는줄을써돛디못흐을  
소이다죄인을가히흐번아니못디못흐은

진실노 성교갓조오이다 상이 못조오  
시더봉쵸해또흔성에드러와더명하느냐  
도승지흥국영이골오더도소의말을듯조  
오니봉쵸해또흔그아들을살와들겨오되  
미쳐성에드러못하엿다하느이다 상이  
대신을도라보오서골으샤더락임은린한  
후겸모든역적으로더브러더체크게드르  
미이사니턴리에구하교인정으로배참착  
하면결단하야이러하느니엄스리라상철드  
이제오더제디쳐로배이러하느니엄스르다하

오니오느 친히 못주소시면가히그참이  
며거쫓거시를결단하리이다밋락임을나  
입하매 상이눈물을써려골으샤디이어  
인일이노참연하야참야보디못하니문량  
이느려가몬져이뜻을닐으라문량심풍지  
도라와알외여골오디죄인이스스로하오  
디불초르상하니만번죽어앗가옴이업세  
라하디이다이에락암드려못주소셔골으  
샤디네왕실구친 나라외 상으로집이디디  
로운해바드미소호이의망극하거늘무슨

新刊義錄卷之二

十一

심술노패악호아즈비를부동호야요피로  
온상운을부축여내야국형초소에나기에  
니르니그죄다른사름에비기면더욱만번  
죽엄즉호고호물며또상길의무리공홍극  
악호호호희비슈를새우홀범호며츄더호  
기롤모의호기에니르거늘네성명이또이  
초소에나니그죄맛당히엇더호료국개즉  
시국형호야무로물모로미아니로되오히  
려잇새선디참기논뜻이이시미오이제날  
이오랜후에다시법을고초와친히못논것

조빛이 또 흐이시니 그 은휘티 말고 종실하  
야 짐고 흐라 문목을닐으기를 只太맨 하  
표흐야 곧은샤 디오늘은곳제인귀관뒤니  
하여곰정신을슈습흐야 주세히공소를알  
외게흐라락임이공소흐야 곧오디신이일  
취손티아닌전에이 하문흐시미잇소오  
니 성은이망극흐온디라신이감히다알  
외디아니흐리잇가신의부저구소블섬흐  
니쇼명엇범스름감히참예흐야 뜻다못흐  
고흐를며신의위인이소졸흐야본디친흐

교아는니업스니상운이틀엇디서로알니  
잇가마는진실노신의두형이후검의게무  
이여장춧원슈되게흐엇는고로신이마도  
못흐야후검을차자본즉상운이그좌상에  
잇는디라더브러말흐엇습터니일노브터  
상운이즈조와춧습고신도또호상운이후  
검의게친밀함으로버잘디접흐옵터니을  
미턴파거방난후상운이출연이신을와보  
옵고좌상에모참손이잇습기로상운이처  
음에머못기느형상이잇습터니나종에니



러나 창밖귀셔셔 스매가 온대 훈간지론내  
여신을 불러 보오되 죠희예기듯 훈알과 뜻  
이 다 이헛거슬우미고 스스를 당훈는말이  
어늘신이 무지저글오더네 디쳐로써 감히  
사름을 의논하려 훈는 나상운이 신을 불그  
름보고가읍더니 밋셔 유령의 상쇠나 매상  
운이 다시 사름의 논훈게 포를 아나 훈읍더  
니 그 후에 상운이 훈훈상소를 바티고 드디  
여즉신여를 가지 죠건을 배신의게 보내엿  
습는디 여를 죠건에 각각 훈두즈와 후서너

조를쓰고별노호쵸희예외척쓰다마입쇼  
셔호논말을고초버시니말의신의집에속  
함으로버주세히호듯호입기에신의진실  
노이덕모움에의심호고피이하너겟습더  
니그후에원본을어더보온즉바극신의무  
식호므로도쓰호그홍참호상원줄을아온  
디라양후의게편지호와상운의요약호고  
홍참함을닐으고그상소호야나국청호를  
권호엇수오니인일은양후의형상후도쓰  
호아닌디라신이상운의편자로버다른날

증거흐려리틀삼고져호와주머니가온대  
김히곰초와버이제신디니르와쇼희다털  
이낫소오니만일 하람호입신즉가히호  
번보입쳐결단호입실이이다무러골은샤  
디네상후로더브러면질호면등히쿨티아  
닐가시브나공소호야골오디면질호면반  
드시쿨티아닐디니련일아저상호시니엇  
디감히일회온들괴망호리잇가상길은신  
이본디그면목을무로입고게능의집도또  
한일즉왕리한일이업스즉저희무리의홍

악호썸를엇디참섭호을니잇소오리잇가  
신의아조비복법호후로브터홍도의무리  
신의집으로배페죽이라호야문득홍참호  
일노버신의집을쓰어다히오나그러나신  
의부지만일일회나 나라희블충호일이  
잇소오면일만죽어도앗갑디아니호을  
거시니무심심장으로배샹길의홍악호썸  
에참섭호리잇가또신의아조비이의나  
라법을범호엇소오니비록신의부지라도  
다만종야에비탄호썸롬이오니어디감히

신의아주비연교로써 나라원망할음  
을밍동항리잇가신이 두가지큰죄잇소오  
니훈가지는상운으로터브러서로친함미  
오훈가지는신이 불행함야 폐족이되야역  
적상길의초소의남이오니이거시다신의  
죄로소이다신의부지만일금슈아니온즉  
우리 현하를밋잡다아니함고도로혀상  
길홍섭의무리로터브러훈가지로홍악함  
외를참예함리잇가 현해신의게현디읍  
서고신의게부외읍시니신이이제갓지사

라잇습닌거시다  
현하의은혜온즉이제  
엇디감히일회온들귀은  
히릿가공소  
기름  
태매  
상이상  
철등을  
드라  
보와  
골  
으샤  
던공  
소  
흐  
는  
배  
절  
절  
이  
도  
리  
이  
시  
니  
웃  
모  
되  
는  
사  
라  
잇  
는  
상  
후  
로  
배  
증  
인  
을  
삼  
고  
아  
랫  
모  
되  
도  
또  
훈  
다  
의  
게  
이  
셔  
단  
연  
히  
다  
른  
뜻  
이  
업  
스  
니  
이  
제  
다  
시  
무  
를  
써  
시  
업  
도  
다  
상  
철  
등  
이  
골  
오  
되  
공  
소  
흐  
는  
배  
다  
도  
리  
잇  
고  
사  
라  
잇  
는  
상  
후  
를  
다  
히  
는  
재  
또  
훈  
족  
히  
증  
게  
되  
리  
로  
소  
아  
다  
상  
이  
삼  
스  
제  
신  
을  
명  
호  
샤  
압  
히

나오시고테 읍하시고 하교하야글은샤  
뒤내고로훈여싱으로벼의지하노배오직  
조공이오신디전년기을이후로브터

조공이음담을전허물녕시고눈물노날을  
디내오셔모양봉쥬하의싱전에면결티못  
하오시므로배지통을삼스오시니모양이  
하교를밧조오매내모음이맛당히엇더  
하리오뒤간의게신난디이의히가디나되  
나라법을중히하진도리에가히명하야그  
치라하도못하고또훈경상을보고시부디

아니 하야이 체서 지허터 아니 하엿터니 오  
늘날마다 못하야이거 죄이시되 공소하논  
배이되다 명백하고 별노다시므로 찾히업  
슨고로 이제 장춧특방하러하노니 일노브  
터뻬후로 주공겨오셔다시 봉조하를보  
오실날이잇소오실셔시오나도 또하  
주공쇠비오을 늦치어시니 오늘날 처분은진  
실노련리인정에 합당하교 제방에도가히  
더욱곳고 해로운 배업단늘은리로다 상철  
등의 줄은더 제공셔이 의심히 명백하교



성. 피. 또. 이. 러. 트. 시. 근. 측. 흥. 오. 시. 니. 조. 텅. 에. 잇  
는. 모. 든. 신. 해. 누. 감. 음. 흥. 지. 아. 니. 흥. 으. 리. 잇. 가  
샹. 이. 글. 으. 샹. 디. 방. 송. 흥. 는. 전. 교. 를. 맛. 당. 히  
버. 느. 리. 올. 거. 시. 니. 죄. 인. 을. 그. 흥. 여. 품. 칼. 을. 벗  
기. 고. 가. 솔. 쓰. 이. 라. 흥. 시. 근. 인. 흥. 야. 명. 흥. 샹  
전. 교. 를. 쓰. 여. 글. 으. 샹. 디. 이. 제. 디. 간. 의. 청. 흥. 는  
바. 느. 못. 나. 국. 이. 오. 나. 라. 법. 으. 로. 의. 논. 흥. 매. 또  
흥. 가. 히. 사. 름. 으. 로. 흥. 여. 품. 을. 미. 흥. 러. 와. 인. 귀  
관. 두. 에. 두. 디. 못. 흥. 거. 신. 고. 로. 빅. 가. 지. 로. 성. 각  
흥. 주. 다. 른. 사. 름. 도. 오. 히. 러. 가. 히. 이. 러. 티. 아. 날

卷之三十一

三十一

새시여든흥물며봉쵸하의아들이오 조  
공의지친가네등극후로불행이간난  
새를만나흥역이비출하니귀와눈에친  
보고드른밧재야니면다친국을베퍼반문  
흥야반드시정을어든후에야법을쓰기는  
진실노망녕도이죽이다아니키로버싱각  
흥이라린한은죄가 종샤에관계흥야진  
실노용덕흥기어려오되처음에오히려근  
디에귀향보내엇더니밧약연의상소를밧  
치고상로의편지가나기예니른즉마디못

호야섬에우리안치호엿다가죽기를주니  
제죄를용서함이아나라의에인명을중히  
너기고진장을기드림이라오닐날락임을  
천히므르물엇다가히알너오나국청호는  
게시또호이미히자디나되처음은참아못  
호고중간은츙연호다가이제야그러티아  
니함을크게써드르너오회라락임의일이  
비록온오디역적의초췌에여려번났다호  
나그근본을싱각호면잇는듯도호고업는  
듯도호고그러호듯도호고그러티아니호

뜻도 하니 만일 한번 친히 못다 아니 하면 비  
록 범함배이신들 엿디 버법을 펴며 만일이  
일이 업스면 또 함엇디 원통코 민망 터 아니  
하리 오내 형성함은 취를 예이 뜻으로  
조공서 품함은 주조피 또 함그러 타함시  
머 발포함배 진실노 일노 배라 이 제공소 함  
근 바를 드르니 함가 지는 상운의 상소 참섭  
함일인디 절절히 조리이셔 사라 잇는 상후  
로 배증거 함고 들찌는 추디 함제함가지로  
색함일인디 단단히 다른 뜻이 업고 인거 함

는 배도 후다 근 소 후야 후 갖 그 말 이 유리 후  
뿐 이 아 니 라 그 뜻 을 가 히 알 새 시 오 후, 불 며  
그 디 체 가 린 한 후 겸 으 로 더 브 러 현 절 히 다  
른 것 가 려 리 와 인 심 에 구 후, 매 실 노 이 러 후  
니 업 슬 새 시 니 비 록 의 소 후 자 최 이 셴 도 그  
모 움 을 원 셔 후 이 가 후 거 든 후, 불 며 처 음 에  
이 일 이 업 승 가 슬 프 다 내 고 로 후 여 성 으 로  
배 상 금 위 명 후 기 는 곳 주 공 이 시 니 주  
공 이 디 난 기 을 후 로 브 러 식 음 을 전 혀 을 니  
시 고 테 루 를 상 히 후 니 오 시 니, 양 후 번 우

러러 보오매 삼간이 불빛는 듯 하디라 오호  
라 조공이 이러듯 하신 밧차는 곳 봉쵸하  
의 얼쿨을 보디 못하 시므로 배그러 하 시미  
오호 갖 보디 못하 실 색 림이 아니라 장쵸그  
싱 전에 면결을 못하 실 가 하 시미 나 못  
하에 불 시 더 부된 업는 고로 조공 마음  
이 마트 시니 내 비록 여상 히 괴 거를 하 고 강  
인 하야 언쇼를 하 나 또 한 엇 디 마음 에 평안  
하 리 오 중야 에 모양 스스로 닐 너 곧 오디  
조공의 배지 보 호 오 시는 배 또 한 오 직 내 이

시미나내응이호일반일노배  조궁뜻을  
깃브시게못호입고호갓  조궁무옴만샹  
히오니진실노늘은바님군되미즐거옴이  
업단말이정히이러호이라단단호어무옴  
이옥루의아는배니조명에잇는제신이야  
또호엇디다알니오당초에내뜻이호번락  
임을친히무러배호빅을판단호고적호되  
배즈져호는밭자논또호이리호는색를당  
호면  조궁무옴이더욱희포를호오시기  
어려오시물위호연피라일작에틈을타총

용히도달호은즉 조공이우르시며날드  
러닐니골은샤디내부친이잇고또형테는  
동거라엇디슈샹으로호여곰이러호마디  
못호거죄잇고져호리오마는이거조곳아  
니면또호내늘은부친의철턴극디호원통  
호을변복호길히업스너모로미호번락임  
드러모러파연외가이시연비록슈룩호여  
도대누웃고호호미업슬거시오만일실시  
업손즉내가이노부롤볼날이이시리너국  
가법귀예조금도휴손호미업고조정제방



에 심히 관계함이 업다 호시니 소지테 음  
호고 그르타시물니 어이 친문호는 거 죄  
잇더니 락임이 과연 뵈탈호디 라 다만 그 원  
왕호거 슬 췌 뿐이 아 니라 내 장앗 주궁 외  
뵈으 올 노치 이시니 흥락 임을 특별히 방송  
호라 오 회라 내 처 음 뜻이 었디 락 임의 무 소  
호기를 헤아려 시리으이 제다 흥히 뵈방 호  
니 이 췌 호 주궁 비고 호 오 신 무 음 의 감 동  
호야 그 러 호 배라 대 터 이 일 이 이 막 린 한 의  
쳐 분 에 관 계 함 이 업 고 췌 계 능 의 모 의 예 간

新日集卷之二

二一ノ一

섭함 이 업스 즉 봉 조해 장 초    조 궁 씨 뵈  
 을 날 이 이 시 리 로 다    전 교 쓰 입 기 를 지 초  
 매    상 이 못 조 오 시 디 봉 조 해 이 의 드 러 왔  
 나    흥 국 영 이 디 왈 비 야 흐 로 켜 하 에 디 명  
 호 다 호 나 이 다    상 이 곱 으 샤 디 봉 조 해  
 해 경 궁 씨 입 디 호 를 소 관 을 보 내 여 전 유 호  
 라 호 사 니 소 관 이 도 라 와 알 외 여 곱 오 디 봉  
 조 해 씨 호 오 디 신 의 아 돌 이 특 별 히 방 석 호  
 시 를 님 소 오 미 실 노    성 상 의 하 늘 기 트 신  
 은 헤 로 나 시 미 니 황 공 호 고 감 터 함 이 크 호

매알외을바를아디못호오되다만신의디  
체만분도다시컬문에드을브람이업슨디  
라소판이와브르오신는 명을전호오되  
나아가물엇디못호오니더우송축호온  
옴이디절호오이다알외더이다소판이세  
번왕반호되봉쇼하호봉한이  
참내드러  
오디아니하니 상이하교호야골은샤디  
경이만일드러오디아니호즉배장춧친히  
디  
호야호가지로드러올새시니이엇디경  
의신분에평안호새리오여러말호새시아

너니즉시드러오라흐시니이예봉한이입  
시훈대 상이손을잡으시고류태하야골  
○샤디경의집이불히하니다시닐을말이  
어어이시리오오놀날경을보니내회포를  
억제하거어렵또다봉한이또훈태음하고  
샤레하느니라 상이국영을명하샤 전  
교를장전에셔닐너시위로하여곰다듯게  
하라하시고 상이상철등드러닐너골○  
샤디대신의차즈를맛당히즉시비담흔새  
시로되알전경등의속명의루나오는차즈

를오히려비답흐디 아니흐기논이일노배  
상량흐논베잇논연피라대터봉쵸해모참  
내흐번도 주궁썩입뒤흐디 못흐은실노  
헝티 못흐일이오안일이러트시쳐분흐디  
아니흐면또흐제방이점점플니일념례업  
디아니흐니이제논린한을토죄흐논의리  
로더브러판연히두가지되어시니의리더  
옥북고제방이더옥엄흐리로다상철트이  
골오디 성피진실노그러흐오시니오날  
쳐분은맛당히속명의록삿해올닌연후

에야가히일세로하와공호연히일게하리  
이다 상이늘이사디가타하오시다



